

서평

식민지 조선 문화의 지평 넓히기

-오영찬 교수의 조선총독부박물관 관련 저작
“『조선총독부박물관과 식민주의』(사회평론, 2022.)”
읽기-

김 인 덕*

오영찬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역사교육전공 교수이다. 한국고대사를 연구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과 영국 브리티시박물관 비지팅 큐레이터를 역임했다. 낙랑군을 중심으로 한 한국 고대사 연구에 주력하고 있으며, 문화유산과 박물관을 활용한 역사교육에 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http://www.ewha.ac.kr>) 저서로는 『낙랑군 연구』(사계절), 『조선총독부박물관과 식민주의』(사회평론), 역서로는 『중국고고학에서 본 낙랑고분』(진인진), 『한권으로 읽는 박물관학』(사회평론) 등이 있다. 주요한 연구실적으로는 「역사교사들의 현장학습 인식과 실천」, (역사교육연구, 2020, no.38.), 「열패한 식민지 문화의 전파—조선총독부박물관의 설립 배경—」,

* 金仁德, 청암대학교 간호학과, kid620827@hanamil.net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1.42..399>

(서울과 역사, 2020.), 「조선총독부박물관 초기 소장품의 형성과 성격」, (역사학보, 2020.), 「민족의 기원을 찾아서 - 한국 상고 민족 담론의 창안」, (한국문화연구, 2019, v.37.), 「식민지박물관의 역사 만들기-조선총독부박물관 상설 전시의 변천」, (역사와 현실, 2018, v.110.) 등이 있다.

오영찬 교수의 『조선총독부박물관과 식민주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책머리에

프롤로그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역사적 궤적을 찾아

제1부 설립: 열패한 식민지 문화의 전파

1장 설립 과정

2장 설립 목적

제2부 운영: 식민지 박물관의 토대

3장 조직

4장 인력

5장 소장품

6장 상설전시: 유물에 갇힌 식민지 역사

제3부 조사: 변동과 파행

7장 총독부박물관과 고적조사사업

8장 1925년 도쿄제대의 낙랑고분 조사

9장 조선고적연구회의 설립과 활동

제4부 전시체제하 박물관: 균열과 퇴락

10장 종합박물관 건립의 추진과 좌절

11장 공출과 소개

12장 식민지 박물관의 주변

에필로그 미완의 식민지 박물관, 조선총독부박물관

본 서평 대상 책인 『조선총독부박물관과 식민주의』의 서술의 주요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기도 한다.

1) 국립중앙박물관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며, 얼마나 철저하게 과거를 극복하고 현재에 자리하며 미래를 지향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사(前史)로서 조선총독부박물관을 살펴본 것이다.

2) 총독부박물관은 물산공진회 미술관 건물을 활용하여 개관했다. 물산공진회 미술관은 임시 건물로 지어진 물산공진회의 다른 전시관들과는 달리 벽돌로 지은 신고전주의 양식의 2층 건물이었다.

3) 총독부박물관은 식민지 문화의 재현과 식민지 문화재의 관리라는 두 축으로 설립되고 운영되었다.

4) 1920년대 초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전통과 관습, 역사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그 보존 혹은 규명을 위해 ‘객관적’ 근거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자료 수집과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5) 식민지 권력이 조선에 설립한 박물관이라면 조선을 중심으로 하면서 주변 지역과 관련된 물건을 수집하여 전시하는 것이 상례였다.

6) 고고유물과 미술공예품을 중심으로 한 총독부박물관의 상설전시는 ‘유물에 의한 역사서술로서의 전시’가 아니라, ‘유물’의 ‘역사적 전시(Historical Display)’였다.

7) 도쿄제대 문학부가 발굴한 석암리 205호분의 발굴 유물은 발굴 직후 보고서 출간을 위한 유물 정리를 명분으로 일본 도쿄제대로 반출되었으며, 또 1930년 보고서가 발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다.

8) 조선고적연구회는 자금을 외부로부터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화려한 유물이 출토되는 평양의 낙랑고분이나 경주의 신라고분을 중심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9) 총독부박물관의 전시실은 폐쇄되었다. 박물관 본관은 지방으로 소개하지 못한 소장품을 한데 모아둔 창고가 되었다. 총독부박물관의 마지막 모습이다.

10) 경성고고담화회는 식민지 조선의 유일한 고고학 관련 모임. 총독부박물관과 경성제대 등 대표적인 조사 및 학술기관 중심의 인맥들은 식민지 지배자 중심의 고고학 담론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 책은 이태진 교수가 주도한 ‘일제 식민사학 비판 총서’의 두 번째 책이다. 본 연구는 일제의 이데올로기를 생산해온 주요 조직 중 하나인 조선총독부박물관을 연구 대상으로, 서구 열강은 제국주의 침탈 과정에서 원활한 식민지배를 위한 문화적 도구로 이를 선택했다고 한다.

한 평자인 김지영은 오영찬 교수의 본 연구를 이렇게 주목했다. “식민지에 설립된 박물관은 서구의 문명적 과업을 식민지인들에게 과시하고, 식민통치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제시한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근대 일본의 문화시설은 이러한 서구의 선행 사례를 모델로 한 것으로, 제국 일본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박물관을 타이완과 조선, 만주 등의 식민지에 이식해나갔다. 조선총독부박물관은 1915년 12월 1일 경복궁 내에 개관했는데, 박물관 설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는 초대 조선총독인 테라우치 마사타케였다. 그는 원활한 식민지 통치를 위해 문화 침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식민지 조선의 박물관과 문화재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김지영,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실체를 파헤친다. 오영찬의 『조선총독부박물관과 식민주의』”, 『한국강사신문』 2022.03.12.)

오영찬 교수는 주목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품과 전시, 조사연구의 연원이기도 한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식민지 문화가 어떻게 전파되었으며, 조직과 인력 그리고 소장품의 출처와 상설전시를 통해 식민지 박물관의 토대가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일제시기 변동과 파행을 거친

조선 고적조사 과정과 전시체제 아래 균열과 퇴락의 길을 걸어온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역사를,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사를, 제국의 식민지 박물관의 특성을 규명하는 작업을 했다.

본 저서의 장점은 무엇일까.

본격적인 조선총독부박물관을 언급한 책이라는 사실은 그 전제이다. 이에 기초하여 우선 거론할 수 있는 것은 이렇다.

1) 식민주의의 문제와 일제의 식민지 지배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한반도에 문화통치의 공간으로 조선총독부박물관을 위치 짓고 그 실체를 밝히는 시도를 한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은 시스템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생각된다.

2) 다양한 조선총독부박물관의 관련 자료를 심고한 연구라는 사실이다. 조선총독부박물관 관련 자료가 전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자가 볼 수 없었던 자료도 잘 정리된 형태로 볼 수 있는 성과물이다.

3) 고대사 연구자이고 고고학자인 필자의 탁견이 전면적으로 녹아있는 저서이다. 기존의 조선총독부박물관을 식민주의 구현 공간으로 서술하여 한국고고학과 한국고대사 연구의 지형 만들기를 새롭게 시도한 연구 결과다. 이른바 한국박물관사 연구의 지형 만들기에 향후 기여할 것으로도 생각된다. 이것은 필자의 의지와 무관한 성과가 아닐지 모르겠다.

4) 현장의 경험과 큐레이팅의 경험에 기초해 선행 연구와 당시의 자료를 해석하는 시도가 주목된다. 연구자로서 박물관의 실무 경험, 박물관 정책에 대한 입론을 갖고 있는 필자만의 강한 논지 전개는 본 저서의 백미의 하나이다. 나아가 큐레이팅의 살아 있는 경험은 향후 박물관사 연구의 큰 길을 이끄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조르조 바사리(Giorgio Vasari)의 르네상스 미술가에 대한 평전처럼 시대를 넘는 연구를, 조선총독부박물관을 통해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필자의 문제의식은 이미 세키노 타다시(關野貞)에 대한 연구를 넘어 식민주의 보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가 하면 이 저서에서 재고하면 좋을 것을 생각도 해 본다. 1) 조선총독부 정책에 대한 서술 더하기, 조선총독부박물관 중심만으로 구성하기, 낙랑에 꼭 주목해야 하나 재고하기. 2) 구체적 조선총독부박물관 전시 보기에서의 아쉬움, 조선 문화의 유구성, 고유성, 우수성이 아니라, 타율성, 정체성 등의 열등감을 조장한 구체성 보기. 3) 박물관 100년사의 내용 적극 평가 비판하기. 4) 식민주의의 인정에서 극복을 다시 시작해 보기, ‘총독부박물관’이 ‘조선총독부박물관’, ‘식민지 역사의 재현’이 아닌 ‘식민주의 역사의 공간’으로 서술하기 등이다.

오영찬 교수의 연구는 조선총독부박물관 서술에 성공했다. 디딤돌 놓기에 성공했다. 큰 디딤돌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국립박물관의 초대 관장인 김재원에 대한 평가는 본 연구의 새로운 지평 설정의 미래형이라 생각된다.